

버섯

손 성 희
진원동초등학교 3학년

우리마을은 버섯을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많다.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 버섯을 키워서 생활을 많이 한다. 학교가는 길가에 새로 버섯키우는 하우스 두동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다.

거기에서 영지버섯을 키운다고 하였다. 나는 영지버섯이 무슨 버섯일까 궁금하였다. 느타리버섯 송이버섯은 먹어보았지만 영지버섯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한국의 버섯'이란 책을 주시며 찾아보라고 하셨다. 그 책을 보니 자세히 나와있었다.

버섯이란 포자가 발아하면 균사가 된다. 이 균사가 바로 버섯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버섯의 영양분은 단백질, 지방, 칼슘, 인삼 등이 많이 들어있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독특한 향기와 맛 뿐만아니라 양양가가 높아서 '불로장수의 영양'으로 여겨 왔다고 한다.

그리고 먹기만 하는게 아니라 약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했다. 특히 영지버섯은 요즈음에 많이 생긴 암을 치료하는데 매우 좋은 음식이라고 하였다. 나는 버섯을 먹기 싫어하고, 음식에 들어있으면 빼버렸는데 다음부터는 꼭꼭 찾아먹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방학동안에 영지버섯을 키우는 하우스에 구경가야겠다고 생각했다.